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창세기 18 주차 (창 12:9-13:18)

(2016년 4월 17일 - 2016년 4월 23일)

(제4권 18호)



목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DRY 제 4 권-제 18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6 년 4 월 17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개정

헬라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I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5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람의 혼란이 시작되다 (주입)

오늘의 본문 (창12:9-13:1)

- (9절) 아브람이 나와서 행하였습니다. (וַיֵּקְרָא בְשֵׁם יְהוָה.)
그리고 그가 네게브(남쪽지방)로 갔습니다. (וַיִּסּוּעַ הַנֶּגֶב.)
- (10 절) 그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וַיְהִי רָעָב בְּאֶרֶץ.)
아브람이 잠시 그곳에 거주하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 갔습니다. (וַיֵּרֶד אַבְרָם מִצְרַיִם לְגֹור שָׁם.)
왜냐하면 그 땅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כִּי־כָבֵד הָרָעָב בְּאֶרֶץ.)
- (11 절) 그가 이집트로 들어갈 무렵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וַיְהִי כַּאֲשֶׁר הִקְרִיב לְבוֹא מִצְרַיִם.)
그가 그의 아내 사래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וַיֹּאמֶר אֶל־שָׂרַי אִשְׁתּוֹ.)
“보라, 당신은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이라. (הֲנֵה־נָּא יִדְעָתִי כִּי אִשָּׁה יְפֹת־מְרֹאָה אָתָּה.)
- (12 절)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이는 그의 아내라 말하고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다. (וְהָיָה כִּי־יֵרְאוּ אֹתְךָ הַמִּצְרַיִם וְאָמְרוּ אֲשֶׁרְתּוּ זֹאת וְהָרְגוּ אֹתִי וְאַתָּה יְחִי.)
- (13 절) 원하건대 당신이 나의 여동생이라고 말하여 달라 (אָמְרִי־נָּא אַחֲתִי אָתָּה.)
너로 인하여 내가 잘되도록 (לְמַעַן יִיטֵב־לִי בְעַבְוֹרָה.)
당신 덕분에 나의 영혼(목숨)이 살도록 (וְחַיְתָּה נַפְשִׁי בְגִלְלָה.)
- (14 절) 아브람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וַיְהִי כַּבּוֹא אַבְרָם מִצְרַיִם.)
이집트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았습니다. (וַיֵּרְאוּ הַמִּצְרַיִם אֶת־הָאִשָּׁה.)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왔기 때문에 (כִּי־יָפָה הוּא מְאֹד.)
- (15 절) 바로의 신하들도 그녀를 보았습니다. (וַיֵּרְאוּ אֹתָהּ שָׂרֵי פְרַעֲה.)
그리고 바로에게 그녀를 칭송하였습니다. (וַיְהִי־לָלוּ אֹתָהּ אֶל־פְּרַעֲה.)
그리고 그녀가 바로의 집으로 취함을 받아 들어갔습니다. (וַתִּקַּח הָאִשָּׁה בֵּית פְּרַעֲה.)
- (16 절) [바로가] 그녀를 인하여 아브람을 좋게 대하였습니다. (וּלְאַבְרָם הָיִטִּיב בְּעַבְוֹרָה.)
아브람이 양과 소와 숫 당나귀와 남종과 여종과 암 당나귀와 낙타들이 많았습니다. (וַיְהִי־לוֹ צֹאן־וּבֹקֶר וְחֲמֹרִים וְעַבְדִּים וְשֹׁפְחֹת וְנֹאֲתָנֹת וְגַמְלִים.)
- (17 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엄청난재앙으로 바로와 그의 집을 쳤습니다. (וַיִּגַעַע יְהוָה אֶת־פְּרַעֲה נֹגְעִים גְּדֹלִים וְאֶת־בֵּיתוֹ.)
아브람의 아내 사래의 일 때문에 (עַל־דְּבַר שָׂרַי אִשְׁתּוֹ אַבְרָם.)
- (18 절) 그래서 바로가 아브람을 불렀습니다. (וַיֵּקְרָא פְרַעֲה לְאַבְרָם.)
그가 말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וַיֹּאמֶר מֵה־זֹּאת עָשִׂיתָ לִּי.)
당신이 왜 그 여인이 당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였느냐?
(לָמָּה לֹא־הִגַּדְתָּ לִּי כִּי אִשְׁתְּךָ הוּא.)
- (19 절) 왜 당신이 그녀를 여동생이라고 말하여 내가 그녀를 내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לָמָּה אָמַרְתָּ אַחֲתִי הוּא וְאַקַּח אֹתָהּ לִּי לְאִשָּׁה.)
지금 보라, 당신의 아내를 데리고 가라. (וְעַתָּה הִנֵּה אִשְׁתְּךָ קַח וְלֵךְ.)
- (20 절)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령하였습니다. (וַיִּצְוּ עָלָיו פְּרַעֲה אַנְשִׁים.)
사람들이 그(아브람)와 그의 아내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내보냈습니다.

(וַיִּשְׁלַח אֹתוֹ וְאֶת-אִשְׁתּוֹ וְאֶת-כָּל-אֲשֶׁר-לוֹ)
 (13:1 절) 아브람이 이집트로부터 나와 그와 그의 아내와 그에 속한 모든 것과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
 왔습니다. (וַיַּעַל אַבְרָם מִמִּצְרָיִם הוּא וְאִשְׁתּוֹ וְכָל-אֲשֶׁר-לוֹ לֹט וְעִמּוֹ הַגִּבְרִי)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아브람이 네게브로 내려갔다. 그런데 그는 네게브에서도 얼마 머물지 못했다. 극심한 기근 때문이다. 그는 물과 양식이 풍부한 이집트로 거처를 옮긴다. 그는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가 잠시 동안 거기 머물기로 작정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 사래였다. 아마도 사래는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모양이다. 이집트에 다다를 무렵 아브람은 슬슬 겁이 나기 시작했다. 아내 사래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집트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꾀를 내었다. 사래를 누이라고 속이기로 하고 아내 사래에게도 협조를 부탁했다. 사래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아마도 남편 아브라함을 위해 그러기로 한 것 같다. 그런데 우려하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이집트 사람들이 사래를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북쪽에서 어떤 아리따운 여인이 왔다는 소문은 삼시간에 바로가 있는 궁에까지 퍼졌고 그 말을 들은 이집트 신하들이 사래를 보러 왔다. 그들은 즉각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자기들이 본 대로 사래에 대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바로는 오라비인 아브람에게 사래비를 지불하고 사래를 자신의 궁으로 끌어들었다. 아브람이 받은 대가는 엄청났다. 그는 막대한 재물과 함께 융숭한 대접을 받았지만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 갔을 것이다. 하지만 상대는 막강한 이집트의 왕 바로다. 아브람은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때 이 광경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셨다. 하나님은 바로와 그 집에 엄청난 재앙을 내리셨다. 바로는 아브람을 불러서 자신을 속인 것을 나무라고는 당장 이집트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였다. 바로와 사래의 결혼은 이렇게 파탄이 났고 아브람은 이집트에서 쫓겨났다. 잠시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갔던 아브람은 다시 네게브로 돌아와야 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기근을 피해 이집트에 들어갔었는데 돌아올 때는 바로에게서 받은 엄청난 재물을 갖고 풍족하게 올라왔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의 구조는 히브리 문학의 전형을 따르고 있다. 아브람 일행이 네게브에서 이집트로, 다시 이집트에서 네게브로 이동하는 것을 액자의 틀로 하는 일련의 이야기다. 헬라어 카이(X)와 같은 구조로 이야기가 배열되어 있다고 해서 카이아즘 구조 (Chiasm Structure, 우리말로 교차 배열 구조)라고 한다.

- A: 아브람이 기근으로 인해 네게브에서 애굽으로 내려감 (12:9-10)
- B: 아브람이 자기를 위해 사래에게 여동생이라고 말해 달라고 부탁함 (12:11-13)
- C: 애굽왕 바로가 사래를 자신에게 준 대가로 아브람을 극진히 대함 (12:14-16)
- D: 하나님이 사래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심 (12:17)**
- C: 바로가 사래를 누이라고 속여 아내로 삼게한 것에 대해 아브람을 질책함 (12:18)
- B: 바로가 자기를 위해 아브람에게 사래를 데리고 이집트를 나가달라고 부탁함 (12:19)
- A: 아브람 일행이 소유가 풍부하게 되어 네게브로 올라옴 (12:20-13:1)

이 교차 배열 구조의 중간에 위치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브람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관한 것이다. 언약의 주체인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신 일을 중심으로 앞뒤에 인간인 아브람과 바로가 한 행동이 배치되어 있다. 결국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브람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는가? 비겁하고 부도덕하며, 심지어 사기꾼 같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가? 이런 아브람을 십분 이해한다고 해도 어떻게 이런 심약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는지 오히려 그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하지만 이런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성경은 왜 이런 나약하고 비겁한 일을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 같은 일은 이번 한 번만이 아니다. 나중에 그랄 땅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아브람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부터 이삭을 낳을 때까지 25년의 기간 동안 아브람에 대해 에피소드는 대략 열 개 정도다. 성경은 그 25년의 삶에 일어난 수많은 사건 중에서 단지 열 개 정도의 이야기만을 기록하고 있다. 그 중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외간 남자에게 팔아 넘긴 사건이 두 번이나 된다. 게다가 그 일이 일어난 시점도 마치 액자의 틀처럼 가나안에 도착해서 부르심의 삶을 막 시작하던 때와 이삭을 낳기 바로 직전이다. 시점도 그렇고 똑같은 일을 두 번씩이나 겪은 것도 그렇다. 그리고 성경이 그 두 사건을 전부 다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그렇다. 뭔가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성경에서 같은 사건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또 그 일을 가감없이 기록했다는 것은 이 사건이 대단히 중요한 사건임을 의미한다. 특별히 이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데다가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중대한 계시가 들어 있는 에피소드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아브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려 한다. 도대체 그게 뭘까?

그것에 관해 살펴보기 전에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덕적 교훈을 주기도 하지만 그것은 단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말씀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깊은 뜻이 있다. 그래서 독자들은 성경에서 도덕이나 삶의 교훈을 넘어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해야 한다. 그 깊은 내용을 깨닫고 나면 아브람의 삶이 단지 한 개인의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 믿는 자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생생하게 담겨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다. 극심한 기근에 아브람은 매우 두려웠다. 언제나 물이 풍족했던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그에게 가뭄은 곧 죽음과 같은 두려움을 주었을 것이다. 그에게 가뭄을 이길 수 있는 지혜 따윈 없었다. 그리고 아브람에게 인내를 기대하는 것 역시나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그는 한번도 이런 일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그는 가깝고도 물이 풍부한 곳으로 옮겨 가려 했고 그곳이 이집트였다. 이집트는 나일강이 주는 풍요로 가득찬 곳이었기에 아브람이 기근을 피해 갈 수 있는 최적지였다.

그런데 이 기근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아브람의 삶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연히 그 땅에 기근이 온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아브람은 하나님에게 제대로 걸린 셈이다.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민족, 땅, 복의 근원을 약속하셨다. 하지만 아브람은 언약은 뒷전이고 당장 눈앞에 닥친 기근을 피하는 데만 급급했다. 그는 늘 그래왔듯이 하나님보다 자기 지혜를 더 믿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친히 언약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시며 신실하게 이루어가신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은 왜 아브람을 기근에 처하게 했을까요? 반드시 그래야 할 이유가 있었다면 당신은 어떤가요? 당신에게 닥친 고난도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요? 당신은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까?

아브람이 떠를 니다 (월요일)

오늘의 본문 (창12:9-13:1)

목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아브람은 네게브를 떠나 이집트로 향했다. 네게브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은 두 갈래다. 서쪽 지중해 해안길을 따라 내려가거나 시내 광야서북쪽에 있는 수르길을 따라 내려가는 길 두 개다. 분명 둘 중 하나를 택해 이집트로 갔을 것이다. 그의 곁에는 아내 사래와 조카 롯, 하란에서 데리고 온 하인들, 각종 가축들과 함께 길을 나섰을 것이다. 네게브의 중심지였던 브엘세바에서 당시 바로의 왕궁이 있던 이집트의 수도 멤피스까지는 족히 사나흘이 걸렸을 것이다.

브엘세바에서 하룻길 정도 이집트를 따라 내려 오다 보면 이집트와 팔레스틴을 가르는 강이 하나 나온다. 건기에는 물이 하나도 없고 우기에만 물이 흐르는 전형적인 와디다. 이집트강이라 부르는 이곳이 팔레스틴과 이집트를 가르는 경계선이다. 아브람이 이집트로 들어갈 무렵, 아마도 이 강을 건너기 직전에 아브람이 사래를 향해 이렇게 말한다.

“보시오. 당신은 내가 보기에 참 아름다운 여인이요.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이 여인은 그의 아내라’라고 말하고 나를 죽일 것이고 당신은 살려 둘 것이요. 그러니 원컨대 당신이 나의 여동생이라고 말하여 주시오. 내가 당신 덕분에 잘되고 당신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도록 말이요.”(11 절 후반절 ~13 절 의역).

아브람은 이집트로 내려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문득 이런 상상을 해본다. 아마도 처음엔 아리따운 아내 걱정을 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정작 문제는 아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데 생각이 미쳤을 것이다. 이집트를 향해 걷는 동안 그의 머리 속은 매우 복잡했다.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다 문득 괜찮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 아이디어를 사래에게 말하는 게 쉽지는 않았다. 걷는 내내 기회를 잡아보려 했으나 번번이 실패했을 것이다. 마침내 애굽 국경에 다다랐다. 이제는 말해야 한다. 아브람은 용기를 내었다. 가까스로 입술을 움직여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생긴다면 말이지...”가만히 듣고만 있던 아내 사래는 아무 말이 없다.

이쯤에서 아마도 슬금슬금 화가 치미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특히나 여자분들이 더 그럴 것이다. 뭐 이런 비겁한 남편이 있나 싶기도 할 게다. 하지만 이제부터 작심하고 이런 아브람을 변호할 작정이다. 누가 뭐라든 성경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는가! 성경에는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상상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그 당시의 혼인 관습에 비추어 보면 아브람이 생각한 아이디어는 제법 그럴듯한 작전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아브람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려면 신랑은 신부 집에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실제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오기 위해 아브라함은 각종 은금 패물을 준비했고 그가족들에게도 상당한 재물을 주었다(창 24:53). 그 뿐인가?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외삼촌 라반 집

에서 머슴처럼 7년을 일해야 했다. 라헬을 신부로 맞아들이기 위해 들어간 비용이 자그마치 야곱의 7년치 연봉인 셈이었다. 그런데 외삼촌이 라헬 대신에 레아를 아내로 주는 바람에 야곱은 다시 7년을 중노동을 해야 했다. 레아와 라헬 둘을 얻는데 무려 14년을 봉사해야 했다. 다시 아브람의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이런 풍습을 고려해 볼 때, 아마도 아브람은 사래를 누이라 속인 후에 누군가 사래를 탐하는 자에게는 신부의 가족에게 주는 혼례 비용을 빌미삼아 위기를 모면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수도 있다. 신부의 오빠이니 당연히 사래를 신부로 들이기를 원하는 남자를 상대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높은 비용을 요구해서 상대를 제압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아마도 이런 기막힌 꾀를 생각해낸 아브람은 자신의 무릎을 치며 기뻐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너무 흥분해서 사래에게 조르르 달려가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여보,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기막힌 아이디어가 생각났어. 당신이 일단 내 여동생이 되는 거야. 그리고 당신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오빠라고 해서 협상에 나서서 몸값을 완전 높게 부르는 거지. 누가 감당이나 할 수 있겠어?”

적어도 아브람이 아내 사래를 진정으로 사랑한 남자라면, 그리고 아브람이 아내를 방패막이로 삼아 자기 목숨이나 지키고자 하는 찌질이 같은 사내가 아니라면 당연히 그랬을 것이다. 거기에 더해 그가 적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손톱만큼이라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 나름대로 복안을 준비해 두고 있지 않았을까? 설사 그 복안대로 일이 성사되지 않을 지라도 말이다.

하지만 아무리 아브람을 변호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 하나가 있다.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이다. 아브람이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가? 그가 왜 아버지와 헤어져 가나안으로 가야만 했는가? 그가 왜 낫선 가나안에 와서 네게브까지 오게 되었으며, 그가 왜 살기 위해 이집트 땅까지 와야 했는가? 근원을 하나하나 찾아 올라가다 보면 그 끝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언약이 있다. 하나님이 그를 불렀고, 가나안으로 인도했고, 지금도 하나님이 그를 이집트로 가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된 적이 없고 항상 유효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그의 목숨을 보존하는 것은 아브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 누구도 아닌 아브람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 그런데 아브람은 스스로 생각했고 그가 찾아낸 방법을 신뢰했을 것이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다고 우리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며,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할 때도 때론 삶이 엉망이 될 때가 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해서든 자기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짜내어 돌이켜 보려고 애 쓰지 않는가? 또는 그러다가 일이 더 엉망이 되는 경험을 한 적은 없는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다. 인생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 가는가? 아니면 모든 아이디어를 총동원해서 그 난국을 타개하려고 애를 쓰는가?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살면서 늘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따릅니까? 아니면 자신의 생각에 더 의지합니까? 당신의 생각대로 하다가 도리어 낭패를 겪은 적이 있나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영망이 된 아브람의 계획 (화요일)

오늘의 본문 (창12:9 - 13:1)

목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아브람의 예측은 적중했다. 우려했던 일이 마침내 일어나고야 말았다. 이집트 사람들이 사래에게 관심을 갖고 슬금슬금 쳐다보기 시작했다. 이집트 남자들이 사래의 미모에 반했다. 사래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도성 곳곳으로 퍼져 나갔고 급기야는 이집트 바로왕의 신하들도 그녀를 보기 위해 나왔다. 소문대로 사래는 너무 아름다웠고, 왕의 마음을 사려는 그들은 앞다투어 사래를 바로에게 바치려고 했다. 그들은 바로에게 이 상황을 보고했고 바로는 즉시 사래를 궁으로 들이도록 지시했다.

아브람의 예측은 정확했지만 그의 계획대로 일이 돌아가지는 않았다. 아브람의 계획은 이집트 사람들이 사래를 아내로 달라고 하면 협상을 할 요량이었다. 신부에 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부른 후 이를 빌미로 사래와 자기 자신의 신변 안전을 피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아브람의 계획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다. 사래를 신부로 데려 가겠다는 자가 이집트의 일반 백성들이나 귀족이 아닌 이집트의 왕 바로였기 때문이다. 바로는 이집트 내에서 어떠한 비용 협상도 없이 신부를 데려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당연히 신부를 데려오는 데 필요한 혼인 비용도 바로의 마음에 달려 있었다. 아브람은 속수무책으로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

바로는 사래를 신부로 데려오는 대가로 처남(?)이자 대리인인 아브람에게 매우 후한 대접을 했다. 아브람에게 엄청나게 많은 양과 소와 당나귀와 낙종과 여종과 낙타들을 주었다. 바로는 사래를 데려 오기 위해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했고 졸지에 아브람은 아내를 팔아 부자가 되었다. 아브람은 자신이 원한 대로 목숨을 부지하긴 했지만 그 대가로 사랑하는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아브람은 아마도 엄청난 충격에 빠졌을 것이다. 이미 아내는 바로의 궁으로 들어갔다. 아내를 빼앗긴 이런 상황에서 그 몸값으로 받은 엄청난 재물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성경은 아브람의 심리 상태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엄청난 자괴감에 빠진 아브람을 향해 ‘자업자득’이니 ‘인과응보’니 하며 손가락질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아브람이라면 과연 어땠을 것 같은가? 지금의 아브람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믿음을 기대할 수 있을까? 사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고향을 떠났고, 아버지와 헤어져 가나안에까지 오긴 했지만 여전히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그 삶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다. 요즈음 말로 하면 초신자인 셈이다. 지금처럼 성경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책을 통해 깨달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세세하게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주신 것도 아니다. 그저 밀도 끝도 없이 아브람을 불러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신 것이다. 게다가 가나안에 도착해서는 좋은 환경과 세심한 배려 속에서 언약을 성취해 갈 사람으로 차근차근 훈련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가나안에 오자마자 심한 기근부터 주신 것이다. 제대로 된 훈련 한번 해보지 않고 실전 배치된 꼴이다. 게다가 상대는 초대형 허리케인 급이다.

이런 아브람에게 어떻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브람이라면 어떻게 대응했겠는가? 완벽할 것 같았던 계획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고 아브람은 절망에 빠졌다. 그런데 이 광경을 처음부터 지켜보던 분이 계셨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아브람은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절망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아브람과의 언약을 잊은 적이 없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아직 아브람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원래부터 사래를 통해 아들을 주실 계획이셨다. 그러나 이런 계획을 알리 없는 아브람은 두려움에 떨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사래가 바로와 동침하기 전에 개입하셔야 했다.

바로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사래를 신부로 맞았다. 신부를 데리고 오는 대가도 두둑히 지불했다.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하게 된 바로는 매우 기분이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사래는 어땠겠는가? 아마도 황망하고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남편인 아브람을 원망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두려움으로 겁에 질려 있던 그 시간에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와 그 집에 엄청난 재앙을 내리신 것이다. 그 재앙으로 이집트의 왕궁은 발각 뒤집혔다. 바로는 너무도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사실 바로가 잘못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사래를 아내로 들인 일이 이런 재앙의 불씨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다. 게다가 재앙은 바로 자신뿐 아니라 궁 전체를 덮쳤다. 온 왕궁에 난리가 났는데 신부인 사래만 멀쩡했다. 그 난리통에 혼자만 멀쩡하다는 게 너무 이상한 일 아닌가? 아마도 하나님은 그때 바로에게 알려주셨을 것이고 바로는 깨달았을 것이다.

자신이 아브람에게 속았음을 알게 된 바로는 당장 아브람을 불렀다. 아브람은 뭔가 일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눈치챘다. 바로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자신으로 인해 바로의 집이 그런 재앙을 당한 것이니 어떤 벌을 내리더라도 아브람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다. 바로는 아브람에게 매우 비정상적인 처결을 내린다. 단지 호통을 치고 역정만 낼 뿐 아무런 신체적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 바로는 왜 아브람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을까? 바로가 아브람에게 한 말이 고작 “왜 나를 속여서 이런 재앙을 당하게 했느냐?”였다니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는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 가신다. 아브람의 어설픈 잔꾀로 인해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하나님은 아브람을 나무라지 않으셨다. 나무라기는 커녕 오히려 아무 잘못도 없는 바로에게 대신 재앙을 내려 아브람을 보호하셨다. 게다가 아브람은 바로가 준 혼인 예물까지 고스란히 챙겨서 이집트를 나오게 되었다. 바로가 그렇게 한 것은 아브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 약속을 기억하기는 커녕 죄를 짓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할 때도 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기보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한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를 용서하고 안아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그것이 복음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려 한 적이 없습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당신은 그 과정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운명의 전주곡 (수요일)

오늘의 본문 (창12:9 - 13:1)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아브람 인생의 수치의 사건은 단지 믿음없는 한 남자의 비겁함 때문에 일어난 헤프닝 정도로만 볼 수 없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람 개인의 일상사를 통해 이스라엘, 나아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첫 400여년의 역사를 계시로 보여주고 계신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다. 압복강가에 홀로 남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 오셨다. 인생에서 늘 다른 사람의 뒷다리만 잡고 살던 그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 ‘속이는 자’라는 뜻의 야곱 대신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의미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다. 그 때부터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지금 아브람이 겪은 이 에피소드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때부터 시작해서 400년 후에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나오기까지 이스라엘이 겪은 역사의 축소판이다. 이 에피소드는 요셉의 인도로 이스라엘의 가족 70명이 가나안을 떠나 이집트로 들어갈 때부터 이후에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나올 때까지의 모든 역사를 신기할 정도로 그대로 보여준다.

먼저 이집트로 내려가게 된 경위를 살펴 보자. 아브람은 네게브에 살다가 기근을 만났다. 기근을 피할 수 없이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갈 수밖에 없었다. 야곱의 가족도 헤브론에 살다가 극심한 기근에 시달렸다. 기근이 계기가 되어 야곱은 가족 70명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다. 물론 그 사이에는 매우 복잡한 사건들이 얽히고 설켜 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려가고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 총리가 되는 사건, 그리고 7년의 흉년과 7년의 흉년에 관련된 얘기 등등. 야곱의 가족이 만난 기근은 7년 흉년 뒤에 이어진 7년간의 극심한 흉년 때였다. 야곱이 요셉과 헤어진 지 20년이나 흘렀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이 이집트로 향한다. 바로 아브람이 그랬던 것처럼 기근 때문에 말이다.

두 번째로 이집트에서 일어난 일을 살펴 보자. 아브람은 아내 사래를 바로에게 빼앗겼고 그 일로 아브람과 사래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의 집에 엄청난 재앙이 임한다. 야곱의 가족도 이집트에 내려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요셉이 죽은 후 새로운 통치자가 정권을 잡는다. 이 새 왕은 요셉과 이스라엘을 모르는 자다. 많은 학자들은 이집트에 정변이 일어나 왕조가 바뀐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롭게 등장한 정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졸지에 노예 신분으로 전락한다. 이스라엘 민족의 집단 거주지인 고센 지방은 노예들의 거주지가 되었고 백성들은 중노동에 동원되는 게 일상이 되었다. 사래가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바로에게 이끌려 들어가 인질이 된 것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 사래는 그 자체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다. 그녀의 사로잡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노예로 사로잡히는 역사를 미리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 된다.

마지막으로 그 사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살펴 보자. 하나님은 사래의 일로 인해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렸다. 재앙이 얼마나 심했는지는 가늠이 되지 않으나 하나님이 바로를 매우 호되

게 다룬 것만은 틀림이 없다. 바로는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아브람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 바로는 아브람과 사래를 순순히 이집트에서 내어 보냈다. 물론 수많은 재물과 함께. 만약 하나님이 어설피게 바로를 다루었다면 바로는 아브람에게 어떤 위해를 가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그날 밤 재앙으로 바로는 하나님은 물론 아브람까지 두려워했다. 아브람 뒤에는 절대 건드릴 수 없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안 것이다. 출애굽 당시의 상황도 동일하다. 사실 한 나라에서 타민족을 노예로 삼는 것은 당시의 역사, 문화적인 관점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에게 중노동을 시켰다고 해서 특별히 그가 비난 받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오늘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중심의 시각으로 보면 바로는 절대 악이고 이스라엘은 절대 선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 사실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곳에 살던 거민들 몰살하고 일부는 노예로 삼은 것을 보면 패자를 노예로 부리는 것은 당시에는 일반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모든 재앙은 바로와 그의 통치권 아래 있는 지역에만 국한되었고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이 살던 지역은 재앙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바로와 그의 백성들에게만 재앙을 내리셨다.

이런 재앙을 당했을 때 바로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중에 가장 상식적인 방법은 군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거나 응징하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는 열 번의 재앙을 겪으면서도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고작해야 노동 강도를 높여 모세에 대해 불만을 갖게 하는 게 다였다. 게다가 모세에게는 어떠한 위해도 가지지 못했다. 당시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최고 권력자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들에게 대항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결국 사래로 인해 엄청난 재앙을 겪은 바로나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열 번에 걸친 대재앙을 겪은 바로나 두 경우 모두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 두 경우 모두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통제하고 장악하고 계셨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는 걸까?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래의 개인적인 경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 구속사를 통해 이들에게 모두 사로잡힘과 풀려남을 경험하게 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서다. 구속은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부활은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속죄는 죄에서 풀려나는 일이다. 노예의 경험이 없이는 자유를 경험할 수 없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다. 죄인만이 속죄를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통해 진정한 해방과 구속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다.

거짓말이 탄로나서 바로에게 불려간 아브람은 얼마나 두려웠을까? 죽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있는데 뜻밖에도 바로는 호통을 치는 것으로 끝냈다. 그는 아브람의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리지 못했다. 아브람은 그 순간 무엇을 경험했을까? 형언할 수 없는 안도감과 해방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 아브람과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해방감을 우리도 경험하게 된다. 그 체험은 단지 책으로 접하는 간접 체험이 아니다. 자신이 죄인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라서는 상태를 반드시 경험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게 된다. 우리도 자신이 죄인이며 그로 인해 죽은 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심판대 앞에 서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의 삶에도 아브라함처럼 동일한 사건이 있었나요? 억압에서 풀려나는 해방을 경험했습니까?

조카 롯과의 분쟁 (목요일)

오늘의 본문 (창 13:2~9)

- (2 절) 이브람은 옥축과 금과 은이 매우 많았습니다. (וְאַבְרָם כָּבֵד מְאֹד בַּמִּקְנֶה בַּכֶּסֶף וּבַזָּהָב.)
- (3 절) 그는 네게브에서 떠나 벤훈까지 이동했습니다. (וַיֵּלֶךְ לְמִסְעָיו מִנֶּגֶב וְעַד-בֵּית-אֵל.)
벤훈과 아이 사이에 있는, 그가 처음으로 장막을 쳤던 장소까지,
(עַד-הַמָּקוֹם אֲשֶׁר-הָיָה שָׁם אֶהְלֶה בְּתַחֲלָה בֵּין בֵּית-אֵל וּבֵין הָעַי) (אל-מקום המזבח אשר-עשה שם בראשונה)
- (4 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장소까지, (וַיִּקְרָא שָׁם אַבְרָם בְּשֵׁם יְהוָה.)
아브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וַיִּקְרָא שָׁם אַבְרָם בְּשֵׁם יְהוָה.)
- (5 절) 또한 아브람과 함께 온 롯에게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습니다.
(וְגַם-לְלוֹט הָהוּא אֶת-אַבְרָם הָיָה צֹאן-וּבָקָר וְאֵהִלִּים)
- (6 절) 그 땅은 그들이 함께 거주하기에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וְלֹא-נִשְׂאָ אֹתָם הָאָרֶץ לְשָׁבֹת יַחְדָּו.)
왜냐하면 그들의 소유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כִּי-הָיָה רְכוּשָׁם רָב.)
그들은 함께 거주할 수 없었습니다. (וְלֹא יָכְלוּ לְשָׁבֹת יַחְדָּו.)
- (7 절) 그래서 아브람의 가축을 치는 목자와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וַיְהִי-רִיב בֵּין רֹעֵי מִקְנֵה-אַבְרָם וּבֵין רֹעֵי מִקְנֵה-לוֹט)
게다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וַהֲכַנְעֲנִי וְהַפְּרָזִי אֲזִי יָשָׁב בְּאֶרֶץ)
- (8 절) 아브람은 롯에게 말했습니다. (וַיֹּאמֶר אַבְרָם אֶל-לוֹט.)
나와 너 사이에, 나의 목자와 너의 목자 사이에, 다투게 하지 말자.
(אֵל-נָא תְהִי מְרִיבָה בֵּינִי וּבֵינֶיךָ וּבֵין רֹעֵי וּבֵין רֹעֵי)
- (9 절) 네 앞에 모든 땅이 있지 않느냐? (הֲלֹא כָל-הָאָרֶץ לְפָנֶיךָ?)
나에게서 떨어지게 되라. (הֲפֹרֵד נָא מֵעָלָי) (כי-אנשים אחים אנחנו)
네가 좌하면 나는 우가 되는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가 되는 것이다.
(אם-השָׂמַאל וְאִימְנָה וְאם-הַיָּמִין וְאֲשַׁמְאִלָה)
- (10 절) 롯은 그의 눈을 들어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וַיִּשְׂא-לוֹט אֶת-עֵינָיו וַיִּרְא אֶת-כָּל-כַּפְּר הַיַּרְדֵּן כִּי כָלָה מִשְׁקָ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므로,
(לִפְנֵי שַׁחַת יְהוָה אֶת-סֹדֶם וְאֶת-עֲמֹרָה)
여호와와의 동산과 같이, 이집트 땅과 같이 (물이 넉넉한 소알 방향의 요단 지역을)
(כַּגֹּן-יְהוָה בְּאֶרֶץ מִצְרַיִם בְּאֶזְכָּה צֹעַר)
- (11 절) 롯은 요단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וַיִּבְחַר-לוֹ לוֹט אֶת כָּל-כַּפְּר הַיַּרְדֵּן.)
롯은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וַיִּסַּע לוֹט מִקְדָּם.)
그래서 그들은 서로 떠났습니다. (וַיִּפְרְדּוּ אִישׁ מֵעַל אָחִיו.)
- (12 절)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אַבְרָם יָשָׁב בְּאֶרֶץ-כַּנְעַן.)

롯은 그지역의 도시에 거주하였습니다. (וְלוֹט יָשַׁב בְּעָרֵי הַכְּנָעַן)
 그는 소돔까지 그의 장막을 옮겼습니다. (וַיֵּאָהֵל עַד-סְדֹם)
 (13 절) 소돔 사람들은 악했고,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습니다. (וְאִנְשֵׁי סְדֹם רָעִים וְחַטָּאִים לַיהוָה מְאֹד)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아브람이 다시 네게브로 돌아왔다. 그에게는 육축과 은과 금이 너무 많았다.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갔다가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하지 말아야 할 피를 내어 자칫 잘못 했으면 아내 사래를 빼앗길 뻔 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겨우 위기 상황을 모면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기대하지도 않은 횡재를 한다. 이집트왕 바로가 사래를 데려오는 대가로 아브람에게 준 모든 재물을 다 갖고 나가게 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그것들은 바로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아브람이 처음부터 바로를 속인 셈이니 바로는 일종의 사기 결혼을 당한 셈이다. 따라서 먼저 속임수를 쓴 당사자인 아브람이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러지 않았다. 아브람이 되돌려 주지 않았다고 보다는 바로가 되돌려 받지 않았다. 바로는 하나님이 두려워 감히 되돌려 달라고 말도 꺼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가 그리하지 않았다 해도 아브람이 먼저 돌려주는 게 마땅했다. 개인적으로 아브람이 재물에 욕심이 많아서 그랬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아브람도 제 정신이 아니었을 테니 얼떨결에 그 재물들을 그대로 갖고 이집트를 빠져 나왔을 것이다. 경황이 있을 리가 있었겠는가? 그런데 이 때 재물로 받아 데리고 온 종 하 같이 아브람의 생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아브람 일행은 이집트에서 일단 네게브로 나왔다가 이내 벨엘로 올라간다. 정확히는 벨엘과 아이사이다. 그곳은 아브람이 처음으로 장막을 치고 살았던 곳이다. 아브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음을 의미한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것이다. 그는 그동안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봤을 것이다. 도무지 자기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는 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었고 자신의 피만 믿었다. 네게브에서 기근이 닥치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무는 대신 이집트로 내려갔다. 벨엘이나 세겜은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반면 이집트는 언약밖의 땅이요 다른 말로는 세상이다. 아브람은 약속의 땅에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눈 앞에 닥친 환란을 잠시 세상 속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피하려 했다. 그는 기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 뜻대로 행했다. 그는 자신의 결정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을 수 있었다.

아브람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다. 지난 번은 기근이라는 결핍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였다면 이번에는 정반대로 풍요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너무 많아진 재산이 갈등을 불러왔다. 아브람의 조카 롯도 거부가 되었는데 아마도 이집트에서 받은 재물의 일부를 아브람이 분배해줬을 가능성이 높다. 그들이 거주하던 벨엘과 아이사 사이의 땅은 아브람과 롯 두 사람을 감당하기에 너무 좁았다. 그만큼 그들의 소유가 많았다는 증거다. 우물이 많지 않아 물도 부족한 데다가 목초지도 넉넉하지 않았을 것이다. 협소한 공간, 좁은 목초지로 인해 삼촌과 조카의 종들이 다툼을 벌이는 희한한 광경이 펼쳐졌다. 이집트에서 깔끔하게 털어내고 왔어야 할 것들을 약속의 땅까지 갖고 온 것이 화근이 된 셈이다.

이집트에서 아브람과 롯은 공동 운명체였다. 아브람이 위험에 처하면 롯도 안전할 수 없었다. 이집트에서 롯이 어떠한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롯 또한 아브람과 함께 속앓이를 했음에 분명하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벗어난 경험은 롯도 마찬가지다. 아브람 뿐만 아니라 사래, 롯 모두 구원을 경험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롯도 많은 재산을 얻었다. 그 재산이 이제 삼촌과 조카의 발목을 잡았다. 이집트에서 고통의 시간을 함께 보낸 삼촌과 조카는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는 서로 다투는 관계로 변했다. 세상에 버리고 왔어야 할 그 재물이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이다.

아브람과 롯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과 너무 흡사하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많은 경우 복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명예를 교회 내에서도 추구한다. 도대체 그게 십자가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가? 세상에서나 일어나는 돈 문제가 교회에서도 일어난다. 교회에서도 돈이 곧 명예로 이어지고 현금 액수에 따라 교회에서의 지위가 결정되기도 한다. 하기사 종교 개혁 이전에서는 면죄부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천국행 표를 팔기까지 했다. 요즘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서 터지는 각종 문제들에 돈이 결부된 경우가 많은 것을 보면 여전히 이집트에서 가져 온 재물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것이 주님의 죽으심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부활과 어떤 관련이 있단 말인가?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며 세상적인 가치가 판을 칠 수 없는 곳이다. 교회도 그렇다.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속량된 사람들이 모인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다.

아브람은 이집트의 것은 이집트에서 해결하고 왔어야 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아브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결국 그 이집트의 망령이 약속의 땅에까지 들어와 말썽을 일으켰다. 그 때문에 삼촌과 조카는 결국 헤어지게 된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세상의 것이 우리를 심판한다. 물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것도,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 때문에 서로 시달리게 되고 결국 공동체 전체가 고통받는 상황으로 변한다. 가이사의 것으로 하나님의 공간을 채우는 것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물질이 가장 우선시 되는 오늘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교회 안으로 파고 들어온 세상적 가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말 뿐이고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 가치에 목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세상의 풍요에 집착하여 공동체에 상처나 흠집을 내고 있진 않습니까?

롯이 소돔으로 가다 (금요일)

오늘의 본문 (창 13:2~9)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아브람이 터를 잡은 땅은 아브람과 롯 모두를 감당하기가 버거웠다. 그 땅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그들이다. 아브람이 들어간 땅이 가나안 땅이니 당연히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그 땅에 대대로 터잡고 살던 토박이들이었다. 외지인인 아브람이 그 좁은 땅으로 비집고 들어간 것이니 가나안 사람들이나 브리스 사람들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다. 결국 롯과 헤어지는 방법 외에는 뽀족한 수가 없었다. 마침내 아브람이 롯에게 말을 꺼냈다.

“너와 나 사이에, 나의 목자와 너의 목자 사이에 다투게 하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는 한 형제이기 때문이다. 네 앞에 모든 땅이 있지 않느냐? 나에게서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가 되는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가 되는 것이다”(창 13:8-9).

사실 삼촌과 조카 사이에 땅이나 물문제로 다투는 것은 남사스런 일이다. 그곳 토박이들인 가나안 사람들이나 브리스 사람들에게겐 좋은 가십거리다. 그런데 이들이 다투게 된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바로 아브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버이 여긴 데에 그 원인이 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람을 부르실 때 분명히 명령한 말씀이 있다. 바로 아비, 친척, 고향 땅을 떠나라고 하셨다. 사실상 아내 사례 외에는 모든 것을 놔두고 떠나야 했다. 아브람은 고향 땅을 떠났고, 하란에서 아버지와의 헤어졌다. 하지만 단 하나, 아브람이 끝까지 놓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조카 롯이다. 아버지 하란을 일찍 여윈 롯은 아브람을 친아버지처럼 따랐다. 자식이 없는 아브람도 롯을 친아들처럼 여겼다. 사실상 둘은 친부자 사이나 다름 없었다. 그랬기에 아브람은 이집트에서 얻은 재물까지도 롯에게 넉넉히 분배해 주었던 것만 오히려 그 재물 때문에 지금 아브람과 롯이 다투게 된 것이다.

아브람이 롯과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왔다. 더는 아브람과 롯이 함께 할 수 없게 되었다. 아브람은 그 사실을 받아들였고 롯에게 먼저 헤어지자고 말한다. 그리고는 롯에게 우선권을 주었다. 롯의 선택에 따라 아브람의 거취가 결정되는 방식을 제안했다. 롯은 아무데나 먼저 고를 수 있었다. 아나, 아브람 곁에 남을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다. 모든 것이 롯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

롯은 고개를 들어 동편에 있는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 물이 풍부해서 더 이상 물로 인해 다툴 일이 없을 것 같았다. 목초지도 풍부해서 가축을 키우기에 그저 그만이었다. 그만큼 그 땅은 매력적이었다. 사실 롯은 삼촌 아브람과 좁은 땅에서 부대끼며 사는 것이 늘 불편했다. 그렇다고 삼촌에게 대놓고 불만을 표시할 수도 없었고 헤어지자고 먼저 얘기를 꺼낼 수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목자들이 와서 불만을 표시할 때마다 소돔을 바라보며 부러워했을 거다. 소돔은 벌써부터 롯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삼촌 아브람이 롯에게 먼저 제안을 했다. 롯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요단의 넓은 목초지를 바라보았다. 풍부한 물과 푸르른 목초지가 그를 유혹하고 있었다.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에덴 동산이 바로 그 땅 같았을 거라고 생각했을 정도니 말이다. 얼마 전에 갔었던 이 집트 땅, 나일강 상류로부터 실려 내려 온 비옥한 토사가 쌓여 늘 곡식이 풍부하게 자라는 그 땅과 같았다. 롯은 이미 마음 속으로 점찍어 두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다. 그는 미련없이 삼촌 곁을 떠나 동쪽으로 향했다. 이 세상의 풍요가 기다리는 소돔과 고모라로...

롯이 동쪽 요단 지역을 택했으니 아브람은 자연스럽게 서쪽 가나안 땅에 남게 되었다. 동쪽으로 간 롯은 점점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되어 갔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까지 그는 그곳에 살았다. 하나님이 불과 유황 심판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쓰고 나서야 롯은 그곳으로부터 떠나올 수 있었다. 롯이 그곳으로 이주하기 전부터 이미 소돔 사람들은 충분히 교만하고 악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롯이 그곳을 택한 이유는 풍요 때문이다. 풍요는 곧 여유를 뜻한다. 그곳 사람들은 사랑과 아량이 가득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소돔은 그렇지 못했다. 그곳은 세상의 전형이었다. 가진 자들은 더 갖기를 원한다. 모든 가치의 기준은 오직 물질이다. 외견상 풍요롭고 넉넉해 보였지만 실제로 그곳은 교만과 악이 가득했고 늘 부족과 결핍에 시달렸다. 풍요는 죄를 낳고 죄는 사람들을 각박하게 했다.

롯의 마지막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아브람은 롯을 매우 사랑했다.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롯을 끼고 다녔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아브람으로부터 롯을 갈라 놓았다. 인간이 못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아브람에게는 가슴아픈 이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언약의 성취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아브람은 철저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아야 했다. 아브람은 다시 한번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깨닫게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다. 하나님이 개입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를 때가 많다. 하나님이 인생에 개입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고난을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언약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섭리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삶에서 고난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까? 그 모든 것을 통해 당신은 삶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아브람이 약속의 땅을 재확인받다 (토요일)

오늘의 본문 (창 13:14-18)

(14 절)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וַיְהִי אָמַר אֱלֹהִים אֲבְרָם אֲחֵרֵי הַפָּרֶדֶת לוֹט מֵעֵמוֹ)

너는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네게브), 그리고 동쪽과 서쪽(바다)를 바라보라.

(שָׂא נָא עֵינֶיךָ וּרְאֵה מִן־הַמָּקוֹם אֲשֶׁר־אַתָּה שָׁם צָפֹנָה וְנִגְבָּה וְקִדְמָה וְיָמָה)

(15 절) 내가 네게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그리고 네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כִּי אֶת־כָּל־הָאָרֶץ אֲשֶׁר־אַתָּה רֹאֶה לְךָ אֶתְנַנֶּה וְלוֹרְעָה עַד־עוֹלָם)

(16 절) 내가 네 자손을 땅의 티끌 같게 할 것이다. (וְשָׂמְתִי אֶת־לוֹרְעָה כְּעֹפֶר הָאָרֶץ)

만약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네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אֲשֶׁר אִם־יִוָּכַל אִישׁ לִמְנוֹת אֶת־עֹפֶר הָאָרֶץ גַּם־לוֹרְעָה יִמְנָה)

(17 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קוּם הַתְּהַלֵּךְ בָּאָרֶץ לְאָרְכָּהּ וּלְרוֹחָבָהּ)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כִּי לְךָ אֶתְנַנֶּה)

(18 절) 아브람은 장막을 옮겼습니다. (וַיֵּצֵא אֲבְרָם)

그는 이동하여 헤브론에 있는 마르레 상수리 수풀에 거주했습니다.

(וַיָּבֹא וַיֵּשֶׁב בְּאֵלְנֵי מְרָא אֲשֶׁר בְּקַבְרֵוֹן)

그는 그곳에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וַיִּבְרֹא שָׁם מִזְבֵּחַ לַיהוָה)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아브람은 그토록 애지중지 하던 롯을 떠나 보냈다. 내리 사랑이라고 롯은 아브람이 제안을 해오자마자 삼촌을 떠나 거처를 옮겨버렸다. 롯은 행복했고 자유를 만끽했지만 아브람은 그렇지 못했다. 가슴 한 편이 아려오며 서운했다. 그런 아브람에게 다시 하나님이나 나타나셨다. 하나님은 왜 이 시점에 아브람에게 나타나셨을까?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언약을 재확인 시켜줄 필요가 있었다. 드디어 아브람은 모든 것으로부터 떠났다. 자의로 했던 타의로 했던 상관 없다.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롯이 이제 아브람의 곁을 떠났고 이로써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한 명령은 지켜졌다. 이제 하나님이 나설 때가 되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네게브), 그리고 동쪽과 서쪽(바다)를 바라보라. 내가 네게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그리고 네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내가 네 자손을 땅의 티끌 같게 할 것이다. 만약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네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창 13:14-17).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언약한 내용은 ‘약속의 땅’과 ‘약속의 자녀’다. 이 두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다. 약속의 땅이 어디인지는 이미 하나님이 확인해 준바 있다. 아브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

하여가나안 땅 세겜 지방에 들어 왔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을 아브람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그에게 약속 하셨다. 그러니 이번이 두 번째 확인이다.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땅이 어딘지는 분명해졌다. 롯이 떠날 때 아브람은 약속의 땅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었다. 남은 것은 자손이다. 내심 아브람이 아들처럼 여겼던 조카 롯이 떠났다. 그리고 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여전히 불임이다.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눈을 들어...바라보라”고 말씀하셨다. 아브람은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 보았다. 약속의 땅이 눈에 들어왔다. 하나님은 그 땅을 아브람과 그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셨다. 아브람이 땅을 약속으로 받는 과정은 롯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롯은 스스로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 반면 아브람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을 바라보았다. 롯은 자기 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해 갔고 아브람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남았다. 인간이 보기에는 롯이 선택한 땅이 훨씬 더 좋은 땅이다. 실제로도 그랬다. 어디든 살기 좋은 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마련이니까. 하지만 아브람이 받은 땅은 그렇지 못했다. 말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이다. 마냥 굶고 있거나 아니면 떠날 수밖에 없는 대책없는 땅이다. 그러나 언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에 아브람은 당장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순종할 뿐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번에도 일방적이다. 약속의 땅도 약속의 자녀도 모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는데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는다. 아브람이 그 땅을 얻기 위해 해야 할 어떤 것도 없다. 아브람의 행위와 무관하게 언약을 이행하는 주체는 하나님이다. 하지만 알다시피 이 순간부터 아브람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그는 수시로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앞당기려 애썼다. 조카 롯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무모하게 전쟁에 모든 것을 걸기도 했고, 후손을 주겠다고 언약을 믿지 못해 급기야 사래의 몸종인 이 집트 여인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은 아브람이 지쳐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할 때까지 기다리셨다. 마침내 아브람은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을 자신의 후손으로 생각했다. 그도 그럴 것이 더 이상 사래로부터 아들을 얻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아브람의 나이 99세, 아내 사래가 89세가 되기까지 아이가 없었다.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나서 무려 24년이나 흘렀다. 아브람과 사래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 얼마나 더 소망의 끈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아브람이 소망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셨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언약을 반복하신다. 이 언약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 아브람이 얼마나 많은 날들을 소망과 절망 사이를 왔다갔다 해야 할지 모른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그 언약의 때를 앞당기려 애를 쓰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때를 기다리신다. 그기나긴 과정을 통해 아브람은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간다. 절망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때가 가까와옴을 알게 된다. 우리가 완전히 포기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그 때가 하나님의 때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인간의 의지로 맘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당신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까?